

곡성군, 내년도 신규시책 쏟아진다

2021년도 주요시책 보고회...역점 시책 180건 발굴 35개 사업...정부 한국형 뉴딜과 접목 추진 계획

곡성군이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2021년도 주요시책 보고회'를 통해 180건의 신규 사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군수 주재 하에 각 부서별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부서장은 직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준비한 신규 시책들을 발표했다.

보고가 끝나자 군수 및 부군수는 각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 추진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며 보다 나은 방향과 대안을 제시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주민참여 활성화 분야에서는 풀뿌리 주민자치 활동가 양성이 눈에 띄었다. 현 정권의 지방분권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

는 발전전략을 추진할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경제 및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상인 단체 육성이 대안적이다. 청년 상인들의 젊고 활력 있는 에너지를 조직화함으로써 기존상권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동력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관광 분야에서 동화정원 녹색 쌈지숲 조성, ▲농정 분야에서 블루베리 공동출하 시스템 구축, ▲생활환경 분야에서 위생처리장 이전 설치 등 다양한 시책이 보고됐다.

곡성군은 보고회에서 오고간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후 타당성이 높은 시책은 소요예산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기대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내



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앙 및 전남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180개 신규 시책 중 35개 사업은 정부의 한국형 뉴딜과 접목해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대응, 침수 피해 복구 등으로 행정력이 많이 분산됐다. 생존의 골든타임을 얼마남지 않은만큼 다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성과 창출을 당부했다.

곡성=김광휘기자

우리 동네 인문 교육 자료 개발

구례군, 다양한 인문학 교육 기회 제공

구례군은 올해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실시한 2020년 '우리 동네 인문 교육 자료 개발'사업 추진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우리 동네 인문 교육 자료 개발 사업'은 2020년 9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구례군 매천도서관이 지역 인문활동가인 임현수(지리산씨협동조합) 연구자와 함께 마을 문화에 대한 스토리텔링형 인문지리서를 발간하는 사업이다. 구례읍성 역사, 노포의 상권 변화, 지역민의 스토리 등에 대한 자료를 디지털

책자로 만들게 된다.

또한, 2년간 단계별 지원으로 2021년도에는 단행본 출간 및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며 성과물은 매천도서관에서 인문학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기록 자료로 보관하게 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구례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수집하여 단행본을 출판하고 콘텐츠로 제작하여 다양한 인문학 교육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기자

코로나 확산 차단 행정조치 연장

담양군, 20일까지 관내 사회단체 집합 금지

담양군은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사회단체의 집합금지 및 모든 공공체육시설, 실내 관광지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군은 한때 400명대까지 치솟았던 신규 확진자 수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지난 3일부터는 연일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광주광역시와 전주시 등 인근 지역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 방심하기엔 이르다는 판단 하에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20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의 모든 집합·모임 행사를 금지하고 실외 스포츠시설과 담뿍수영장, 문화회관, 체육관 등 실내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한다.

현재 담양군은 최근 전남도의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청사 내 별도 상담 장소를 마련해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 발열체크와 민원실 등 민원인 응대대 많은 직원 자리와 회의실에 투명 아크릴판을 설치했으며, 매일 청사 각 사무실과 입구 손잡이, 민원창구 등에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철저한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과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담양=박종영기자

나주시, 혁신도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최종 승소'

개발부담금 관련 승소 판례 만든 첫 번째 자치단체



광주전남공동(나주 빛가람)혁신도시 항공사진

나주시가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개발 3사(한국토지주택공사·전남개발공사·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부과한 660억원대 개발부담금 부과사건 대법원 재판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개발 3사에서 나주시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2019두00000) 사건에서 2020년 9월 3일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혁신도시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라고 판시하면서 개발 3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나주시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례를 만든 첫 번째 자치단체가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를 추진 중이거나 혁신도시 및 계획도시 관련 개발부담금 소송을 진행 중인 타 자치단체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 사업으로 생기는 개발 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시행사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지가 상승과 토지투기의 만연,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 토지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80년대 후반 정부가 도입한 토지공개념 3법 중 하나다.

나주시는 지난 2007년 5월 착공, 2015년 12월 최종 준공된 혁신도시 개발행위로 인해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한 개발 3사에서 토지공개념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2016년 732억원 개발 3사에 부과·징수했다.

기동취재본부

화순군,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사업 3개 선정

예산 253억 원 투입...농촌 생활여건 개선·특화사업 지원

화순군이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서 신규 사업 3개가 선정됐다.

내년 신규 사업에 확정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국비 70%를 지원받

는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은 '화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180억)',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70억)', '시군역량강화사업(3억)'으로 총사업비 253억 원이 투입된다.

화순읍 거점 조성을 위한 화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선정된 '화순세대연대복합센터'와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SOC복합화 사업과 연계 추진하겠다는 구상은 평가 당시 평가위원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

았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공유경제 플랫폼 조성 및 운영이 핵심 사업이다.

농산물 생산 농가, 로컬푸드 판매점, 사회적경제 조직이 합심해 공유 가공시설 등을 포함한 지역 농산물 순환경제 플랫폼을 조성·운영할 계획이다.

화순=박순철기자

곡성 Gallery 107, 천연염색 개인전



곡성군 갤러리 107과 스트리트 갤러리에서 9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김말래 작가의 천연염색 개인전이 열린다.

김 작가는 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복식학과를 졸업하고 현재까지 활

발한 쪽 염색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쪽 염색의 푸른색을 주제로 한 작품 30여점을 선보인다.

김 작가에 의하면 천연염색 작업 과정은 육체적인 노동이 절반이다. 따라서 수없이 한계에 부딪히고 실망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하지만 쪽에서 우리나라의 청아한 푸른 빛에 흠뻑 미진듯이 풀을 바르고 침염으로 산을 그려내듯 하나하나의 작품을 그려낸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그의 작품에서는 삶의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다.

곡성=김광휘기자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